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7호 [루체 제25736호] 주제 106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는 전략적군종대면합부대 지휘부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이 융양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대장 김락경동지를 비롯한 대면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도착하시자 대면합부대의 장병들은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안고 온몸을 불태우시며 우리 국가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대면합부대 장병들은 가장 준엄한 정세속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조선로동당의 친술군종으로, 핵무장력의 중추력량으로 굳게 믿으시며 반미대결전의 제1선에 내세워주시고 오늘은 불소 대면합부대를 찾으시여 무적의 힘과 용기, 백두의 탄력과 배짱을 안겨주시는 공화국핵무력

의 총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김정은결사옹위!》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에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아 주시면서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다 모르는 미증유의 힘을 지니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상징하는 강위력한 타격군종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걸어온 백두명장들의 지극한 명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사령부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하고있는 판도포위사격방안에 대한 김락경대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판도포위사격방안을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지휘성원들과 전지하게 협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에서 판도포위사격방안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매우 지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작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위력시위사격준비상태를 검열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광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련합부대에 와서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와 사기충전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군사적대결망동은 계층으로 제욱에 윤가미를 거는셈이 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없는 개기를 부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특실관계를 잘 따져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협한 군사적총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오만무제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견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견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협천만만 망동을 계속 무리대면 이미 천명만대로 증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제획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슬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총폐한 역사적순간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천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군사강습소,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군사감습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련합부대안의 전체 화성포병들을 현대군사과학기술과 적들의 변화된 전쟁수행방식, 그에 대처한 우리 식의 전범에 완전무결하게 정통한 두뇌전의 능수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란도르케트들이 현대화, 첨단화되는데 맞게 전략군 지휘성원들과 기술인군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구분대식당을 비롯한 대련합부대 지휘부인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후방사업이자 싸움준비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전사들을 친형제,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잘 돌봐주어야 하며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껏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전략군의 작전임무와 특성, 화성포병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니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핵무장력의 중추력량으로서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 화성포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상과 신념이 무결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련합부대 당위원회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는데서 전략군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명관의 유일적 명도체계, 유일적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체적인 로켓트전략법을 더욱 완성해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전만년미래를 억적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보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체 전략군 장병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충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시면 무적의 발사태마다에 성스러운 붉은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휘날리며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본토의 타격대상물들을 섬멸적인 초강력타격으로 초토화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승리와 변영의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막대한 도전을 단호히 거부하며 필승의 신념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공민권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당의 두리에 굳게 붙어 사회주의조국을 전진히 수호하고 최후의 승리가 되려는 선만군민의 결사의 의지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가 되려는 선만군민의 결사의 의지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가 되려는 선만군민의 결사의 의지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가 되려는 선만군민의 결사의 의지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일며세 우선 민족생애의 운인, 결사의 애국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당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암담한 시기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노선을 제시하시었으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기층당조직들과 강철의 무장대오, 강력한 주체혁명력량을 마련하시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뛰놀았던 영웅적항쟁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백두산에서 창조된 항일의 혁명전통과 투쟁정신을 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명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민은 세계사회의 혁명파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조국이 천리마의 기상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부강조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우뚝 솟아오를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조선은 빛내이신 위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위업계승 완성을 생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로 전진시켜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혁명명도사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떨치신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결집한 거대한 위대한 혁명의 역사이다. 사회주의조선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존엄으로 빛내이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변영의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열선, 강국념원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위대한 최고령도자주체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나감으로 선만군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변영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사상도, 명도종교와 혁명방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어 전승하는 최고령도자주체의 의지이요 오늘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과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번번적으로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 조국수호, 조국건설의 고귀한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세대대 무궁번영할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선군의 기치높이 반세기이후의 영웅사상을 창조해나가는 전진파의 군사강국이다. 일찍이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한 근본초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명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때에 포악한 제국주의의 강적들을 타도하는 군사적기적을 아와고 세기를 이어온 반세기이래 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전진투승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또 한번의 선군명령을 모시며 어떤 강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부호로 위용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활기찬 투쟁이 이르는 곳마다에 자강발전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투쟁적인 전진투승을 가르쳐주시고

승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전군을 진정된 전우부대, 참다운 동지부대로 만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는 주체의 전진파와 더불어 불멸의 서사시로 빛나고있다. 경제건설과 혁명투쟁을 병진시킬때 대한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을 직활을 원천히 제압할수 있는 우리 식의 위대한 주체무기와 첨단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는 백두산명기장으로 전진파주위선봉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불법 무법의 유엔《세계경제》를 조작해내고 《전쟁불사》를 부르짖으며 반공화국력 등에 미쳐달리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조국의 위상에 걸맞은 자들의 단발적대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물개며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전을 향하여 전세계를 싸워나갈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자력자강의 위대한 명도로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진도양양한 나라이다.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는 자강혁명업적의 기치는 자기 나라 혁명을 자력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조국이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자력자강의 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혁명하는 법을 배운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추후의 드림도 없이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왔다. 자력자강의 길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불변법칙이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행동과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강요한 기상을 떨치며 자력자강,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통일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있는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강혁명의 전통이 있기때문이다. 자력자강대진군의 불길높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자강혁명의 위대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의 공적증거는 현실이다. 시련과 난관이 겹칠수록, 제국

까지 전진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으로 승승고 원수님의 애국신심의 강령준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함께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펼쳐지 확립하여야 한다. 원수님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진총투쟁전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오늘의 전진총투쟁전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대한 미제의 전면적인 도발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앞대 양상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총력전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미제와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천리마대오를 일으켰던 것처럼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마차로 적들의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어지없이 두드러부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누구나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위대한 이상과 포부를 안고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혁명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 우리는 백사적인 하에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칙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 혁명의 난대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순경한 광성과 의리로 총지하게 만들어온 항일혁명 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당과 권위를 바탕으로 옹호보위하며 원수님의 사상과 노선을 무조건

2017년 백두산선언

우리를, 각국의 진보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대표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은 인류사주위업의 시련이 열리고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백두산에서 2017년 백두산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는 미중유의 사면들로 가득찬 지난 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들을 돌아보며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백두산위인들께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에서 반세기

을 누비를 밝히시며 피압박근로대중의 해방과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계적인 대정치통판과 국제반봉세력의 고립압살행동속에서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새 세기 자주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오늘날 진보적인인민들은 크나큰 영광과 환희속에 사상과 명도, 품모에 있어서 그분들과 똑 같은 신 또는 한 분의 백두산위인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명도력, 무비의 당백과 명철한 지략, 출중한 인품을 지니시고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류사주위업을 승려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계신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만리마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고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김정은각하의 천출위인상에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혁사의 제함과 오늘의 현실이 부여한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있는 우리들은 인류사주위업이 반드시 실현될 21세기의 광명한 앞날을 여기 백두산에서 내다보며 엄숙히 선언한다. 1.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인류의 래양이시다. 우리는 세계사주위업선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를 주체의 태양, 선군태양으로 영원토록 칭송하며 백두산위인정승국제축전을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는 인류공동의 정치문화축전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는 인류사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하는 21세기의 위대한 래양이시다. 우리는 세계정치의 방향타를 틀어쥐신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21세기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종식되고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가 실현되는 위대한 김정은세기로 빛나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3. 백두산대국은 정의와 진리의 힘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백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자주, 자립,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반세기 주체의 성세, 사회주의의 모든 백두산대국을 지지성원하는 활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것이다. 백두산의 정령한 기상을 안고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을 모시며 인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찬란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백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이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각하 만세! 2017년 8월 14일 백두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각하
나는 조선해방 7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존엄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공동의 투쟁으로 마련된 조로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은
주제 106(2017)년 8월 15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은각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있습니다. 나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와 건설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북북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이바지하겠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시길 축원하며 귀국의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태양의 성산에 굽이친 만민칭송의 열기

백두산태양맞이모임 진행

【삼지연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태양맞이모임이 진행되는 다함없는 흥분의 마음이 날이 깊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속에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시작되었다.

축전은 사상과 명도, 품모에 있어서 인류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위인종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위대한 위인종이신 김정은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뜻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국제적의합이다.

14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서 백두산태양맞이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참가자들은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도의 정열을 안고 백두산정에 올랐다.

편편히 뻗어내린 이 나라의 천만산악을 휘황히 밝히며 찬란히 솟아오른 태양의 빛바람에 장군분과 향도봉이 우뚝이 부각되고 맑고 푸른 천지의 장쾌한 전경, 저 멀리 아득히 펼쳐진 밀림의 바다가 붉은 노을에 휩싸여 신비로움과 우아함의 극치를 이룬 백두산의 절경은 참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태양조선의 장쾌한 새 아침, 사회주의승리의 리명이 밝아오는 백두산의 용광람과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숨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역설 뿌리가 내리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상상한 미래가 밝아온 조종의 산, 그 인제나 오르고싶던 태양의 신의 장엄한 위용앞에 걱정을 금치 못했다.

백두산태양맞이모임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의원장 김기남동지와 비서관 황광도인민위원회의 위원장,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오영길 문화성 부상, 시기장인 박경일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인공들이 참가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페르 우즈 도시 및 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 다미안인 테양의 신의 장엄한 위용앞에

전국위원장, 허모리 후미리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치 일본위원회 의장, 헤르도르 베르도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의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단마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아호아 자카리아 헤이올라 예집트자유사회주의자

당 부위원장,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국제 인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네일 퍼즈제발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세안지역본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2017년 백두산선언을 낭독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 선군의 보검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경에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자취하신 새 세계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진보적인류의 철칙의 신념과 의지

를 담은 선언은 전지를 진감하며 장광높이 때아리져갔다.

선언낭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불멸의 혁명승가《김정은장군찬가》를 무성껏 합창하며 《만세!》의 함성을 터쳤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기념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브둘라이에 디알로 기네주체문학사상 연구회 회장과 흐르세 루이스 우베르탈리 아르헨티나작가가 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즉흥시를 격조높이 부가하여 위인종모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모임참가자들은 또 헌분의 백두산 위인이신 김에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에서 계시어 인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세계자취위업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에 넘쳐 《백두산 대국에 영광을!》이라고 쓴 프랑카드에 서명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등의 프랑카드와 축전기념품을 들고 노래 《가리마 백두산으로》의 힘있는 선율이 맞추어 힘차게 행진해나갔다.

백두산태양맞이모임은 비범한 사상미려과 탁월한 명도력, 무비의 담력과 명활한 지략,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경에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취위업을 승미적으로 실천시켜나갈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리따라르는 만민의 열화같은 칭송의 고귀한 정화이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 백두산 밀영고향집 방문

【삼지연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14일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이제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뻗어오른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승려와 영광으로 빛내여 오신 위대한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다시금 되새

기었다. 그들은 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시뻐부귀를 짐과 대원신, 향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서 사용하신 박우물 등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에 앞서 축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삼지연대기념비를 참관하였다.

【삼지연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13일 보천보혁명전적지와 리명수혁명사적지를 탐사하였다.

혁명의 불꽃을 태오얇에 휘날리며 백두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탐사행군대원들은 가림천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전군의 길에 올랐던 투사들의 열렬한 조국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심경마다에 쏘아박고 사회주의강국건설전적지에서 혁명의 지휘선, 인민의 참된 총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드로하였다.

14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온 나라 강토에 조국해방의 태풍이 파란치게 할 구상을 안고 시고 무산지구원공작진계회를 무르히시어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청봉속영지와 전향, 배개봉속영지들을 탐사하였다.

향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서 밤을 지으신 지리와 우동분자리, 구호나무를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이며 건투적인 생활기품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심스리는 혁명전구마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향일의 혈전관리 길을 헤쳐온 투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미세와 그 추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보천보, 리명수지구 탐사, 삼지연군 참관

한 공기를 한껏 마시며 야외속 영을 하였다. 수령님께서 진행한 항일혁명투사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전군의 길에 올랐던 투사들의 열렬한 조국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심경마다에 쏘아박고 사회주의강국건설전적지에서 혁명의 지휘선, 인민의 참된 총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드로하였다.

14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온 나라 강토에 조국해방의 태풍이 파란치게 할 구상을 안고 시고 무산지구원공작진계회를 무르히시어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청봉속영지와 전향, 배개봉속영지들을 탐사하였다.

향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에서 밤을 지으신 지리와 우동분자리, 구호나무를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이며 건투적인 생활기품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심스리는 혁명전구마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향일의 혈전관리 길을 헤쳐온 투사들처럼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미세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제압책들을 단호히 짓부셔며 당의 위업을 총직하게 만들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어갈 일념안고 탐사행군대원들은 행군길을 다그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비라보이는 유서깊은 삼지연군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향정사가 깃들여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영광의 땅에 들어선 탐사행군대원들은 솟구치는 적정을 금치 못했다.



삼지연대기념비와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그들은 백두의 대업을 뜻깊이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의 혁명전통을 절절히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이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승미적전진을 다그쳐나갈 군은 명세를 다지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을 찾은 탐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데르천박물관으로 삼기 좋은 인민의 라원으로 꾸리

자료를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56년 6월 9일 탐사행군대원들과 하루밤을 보내신 삼포공리물집과 우리 당의 손길아래 탐사자들의 생활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혁명전적지탐사숙영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삼지연군우리기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 주고 그들과 함께 일도 하였다.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서 그들은 백두의 대업을 뜻깊이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의 혁명전통을 절절히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이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승미적전진을 다그쳐나갈 군은 명세를 다지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을 찾은 탐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데르천박물관으로 삼기 좋은 인민의 라원으로 꾸리

자료를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56년 6월 9일 탐사행군대원들과 하루밤을 보내신 삼포공리물집과 우리 당의 손길아래 탐사자들의 생활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혁명전적지탐사숙영소를 참관하였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삼지연군우리기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 주고 그들과 함께 일도 하였다.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집회 진행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과 기상을 단방에 펼쳐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에 겁을 먹고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적 동태에 배어달리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중오와 분노의 불길이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집회들이 13일과 1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경사송위하는 총돌격의 날이 되자!》, 《반공화국(세계적의)을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펼쳐자!》 등의 구호문들이 집회장면에 세워져 있었다.

집회들에는 관개부, 농근맹, 녀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은 《천만이 총돌격대》로 주제로 시작되었다.

통강군 옥도 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김장영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방독하였다.

이어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장 김규철, 통강군 옥도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광옥, 통강군 풍호협동농장 농장원 오영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앞에 서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것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남강도 미제의 강권과 권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퍼를 들고 날뛰는 식인종무리들만이 꾸미낼수 있는 력사에 복제없는 국악한 만인물적범죄문서이라고 딱언하면서 이를 천백배로 단죄규탄하였다.

미제의 무분별한 군사적압박에 대처하여 보다 강경한 경고신호로 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서와 함도포위사격방안에 관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성명은 불구대천의 원수들에 대한 천백배의 보복과 징벌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책동속에서 고고한 투쟁을 벌이며 얻은것은 다 열심하고 악의 제국, 침략의 원수인 농업근로자진 끝없는 자부심과 든든한 배짱으로 농근전선에서 승전보상을 더 높이 올려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운명이고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경사송위하는 천결단결의의 성세가 더고 방탄벽이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밝은 곧 사회주의이며 원수적멸의 총포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악의 제국, 침략의 원수인 승상이 미제의 야성을 불마당질하는 심정으로 땅이 꺼지제 농사를

잘 지어 적들의 포악한 제재책동과 책동을 짓부셔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레에 더욱 굳게 종사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선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총대진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장이 방독하였다.

이어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손명애, 풍호협동농장 배명숙, 평천구역 해운2동 녀맹원 최은희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불법무법의 범죄문서로 낙인하고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원수들의 극악무도한 남강도적책동을 천백배로 단죄규탄하였다.

그들은 세계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이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걸림돌자들의 단발미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원수들이 아무리 제재요, 핵위협이요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워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만군민의 배방과 영웅적기상은 백두의 역전 산악과 같이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만약 원수들이 우리 공화국에 강히 선봉길을 한다면 천진총돌격사건을 빌미 적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안기고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흔적도 없이 없애 버리려는 결사의 보복의지가 온 나라 천만군민과 함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심장마다에 활화산처럼 라오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경사송위하는 열렬한 녀성혁명가들로 더욱 끈끈히 준비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알살하려는 놈들의 제재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강적애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올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녀맹원들의 활약을 과감히 전개하며 이 땅 위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온다면 정의의 선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조국수호, 전선선호에 한몸바치는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성으로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천진총돌격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조선녀성들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펼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들은 《천진하는 사회주의》로 주제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봉모가 1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해방조선의 첫 꽃다발과 더불어 이어진 애국의 길

독자들은 해방후 모란봉구역을 공설운동장(당시)에서 우리 민족의 진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 전제 조선인민의 마음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꽃다발을 드린 녀인을 알고있으셨습니까.

모란봉구역 개선동 25인민반 문해방로인의 가정

나뉘고 간혹한 가르치심을 받았 하였습니다. 그런 영광을 지니면서 어머니와 부사관들은 그분이 항일의 진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던 10월 13일 저녁 한 일꾼으로부터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된 꽃다발을 단물라는 과업을 받았습시다. 어디에 쓰려는것을 묻는 어머니에게 그 일꾼은 예언이 들어간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울려주었다. 어머니는 그 꽃다발을 안고 어머니는 아침일찍 모란봉구역을 공설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운동장은 초민원용 이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고위지도자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14일 제5차 북두산위인 정승국제축전에 참가하고있

중산의 불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산제회를 넘쳐 수확량 령도관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원수적멸의 의지를 안고 석탄의 중심의 불길을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캄보자품신패크당 대표단 도착

캄보자품신패크당 대표단 4명(리수용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중에서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확량

대중에서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확량...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coal production and the role of workers and cadres.)

주체사상탑 광장에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장훈선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방독하였다.

주체사상탑개선관리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첫시작을

주체사상탑개선관리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첫시작을... (Text describes the start of support work for the monument renovation.)

의 아버지들 반일애국면사로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일애국면사 가족담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사심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 오신 문해방로인의 길을 길이 104(2015)년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었다.

하늘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문해방로인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내세웠다.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손자, 손녀들도 애국의 바를 이어 문해방로인과 함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역세게 걸어가고있다.

얼마전 문해방로인과 온 가족은 성의어린 지원물자를 마련해 가지고 주체사상탑개선관리소로 찾아 문해방로인을 크게 기뻐하였다.

문해방로인의 첫 꽃다발과 더불어 대를 두고 이어지는 애국의 길!

시련많은 이야기를 새겨며 문해방로인과 헤어져 모란봉을 내려 개신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문해방로인의 한결같은 애국의 길을 걸어온 문해방로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었고 위대한 수평님을 높이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그

